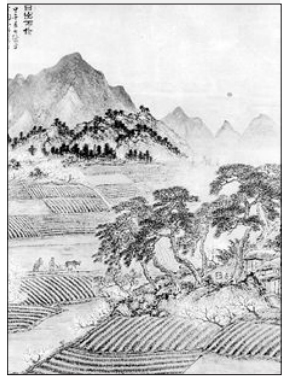


남종화 '춘설일가' 젊은 작가 '봄 기획전' 봄향기 그윽한 '탐매진'

전시장에 꽃향기가 가득 차다. 광주지역 미술관과 박물관이 봄을 맞아 다양한 전시회를 마련했다. 남종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춘설일가'의 작품전과 지역 젊은 작가들의 봄 기획전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허백련 '농경도'



노의웅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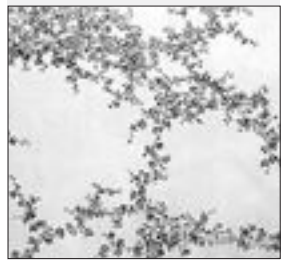
정승주 '어운92'



김해성 '봄'

봄, 그림에 취하다

▲묵향은 봄바람에 흩날리고-



허달재 '흥매'

의재 허백련(1981~1977년) 선생과 그의 동생 목재 허행면(1906~1966년), 의재 선생의 손자인 직현 허달재(의재미술관 관장) 화백에 이르는 '춘설일가'의 작품 30여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오는 3월6~31일까지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자락 의재미술관.

이번 전시에는 의재 선생의 화조 병풍과 작고 단아한 소품인 '화중군자' '무예' 등 남종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소개된다. 화려하고 호방한 붓질이 잘 드러나 있고, 상채를 보듬고 아우르는 남도 풍경의 아름다움이 스며있는 작품이다.

또 관광업을 운영했던 목재의 경험이 잘 표현된 '채광(採鑛)'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을 선보인다.

허달재 화백은 회고, 붉은 꽃잎들이 소담스럽게 화폭을 뒤덮은 매화그림을 선보인다. 정통 남종화의 화법을 잇고, 현대적 감수성으로 재해석한 수작이다. 연한 푸른색, 연한 붉은색으로 칠해진 바탕 위에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가 금방이라도 후드득 떨어져 내릴 듯 눈길을 끈다.

사실상을 최소화시켜 매화 즐기는 간데없고 꽃잎만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는 추상적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매화를 주라? 진달래를 주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27~4월26일까지 '봄'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시립미술관 소장품 중 봄을 주제로 한 작품을 모았다. 국중호, 김병중, 김진화, 김해성, 노의웅, 정상삼, 정승주, 조근호, 최재영 등의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국씨는 매 밭에서 울기종기 앉아 풀을 뽑는 아낙네들의 한가로운 모습과 화면을 가득 채운 산수유와 화사함을 통해 남도의 봄 소식을 전한다.

또 노씨는 마을 언덕에 피어있는 진달래를, 조씨는 삭막한 도심에 서정적인 색감으로 풀어낸 작품을 각각 출품했다.

전시에 맞춰 3월4일 오후 7시에는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봄 노래를 들려주는 '작은 음악회'도 곁들여진다. 문의 062-510-0142.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펼쳐 놓은 매화 향기도 그윽하다. 광주박물관은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탐매(探梅), 그림으로 피어난 매화'전을 오는 3월29일까지 개최한다. 1542년께 그려진 작자미상인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의 매화도부터 2008년 이이남씨의 '신매화도'까지 460여 년에 걸친 매화 그림 90여 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570-705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비단 자수...색 변하는 책... "탐나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200권 기념 특별판 판매

바위산을 비단으로 수놓은 보랏빛 표지, 표지를 손대면 색(色)이 변하고,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입체적인 표지...

출판사들의 '탐나는 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음사가 최근 세계문학전집 200권 돌파를 기념해 '디자인 특별판'을 냈다.

시각디자이너 안상수,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 박시영, 팝아티스트 박진우, 제품디자이너 이준태(텐저린 대표) 등 각기 전공이 다른 유명 디자이너 10명을 책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었다. 이들은 전집 중 선택된 베스트셀러 10개 중 하나를 맡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우선 이상봉씨는 고전소설 '구운몽'에 구름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바위산을 수놓은 보랏빛 비단옷을 입히고, 바늘뿔이 보이도록 수를 놓았다.

'오만과 편견' 표지엔 손을 대면 회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는 사람이 등장한다. 영국 디자인회사 텐저린의 이준태 대표가 "등장 인물의 감정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서모컬러(thermcolor)라는 특수 잉크를 사용한 것.

디자이너 김한민은 '거미 여인의 키스'를 마치 연극무대를 보는 듯한 비주얼로 그려냈다. 책보다 오히려 연극영화로 더 많이 대중에게 알려진 책의 사회적 맥락을 책 장정에 반영한 것이

다. 문에 '험릿'(슬기와 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박훈규), '고도를 기다리며'(안상수), '이반 테니스비치, 수용소의 하루'(박시영), '변신·시골의사'(박우혁), '동물농장'(박진우), '데미안'(정병규) 등도 디자이너의 독특한 작업을 통해 예술작품으로 창조됐다. 민음사는 특별판 제작을 위해 2억5천만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 서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이 특별판은 2천부 한정판으로 한 질(10권)에 25만6천원이다. 민음사 유언이 미술담당 이사는 "책은 눈으로만 읽는 시대는 지났다"며 "독자의 육감을 자극할 수 있는 토털 디자인을 접목하기 위해 각 분야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음사 유언이 미술담당 이사는 "책은 눈으로만 읽는 시대는 지났다"며 "독자의 육감을 자극할 수 있는 토털 디자인을 접목하기 위해 각 분야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음사 유언이 미술담당 이사는 "책은 눈으로만 읽는 시대는 지났다"며 "독자의 육감을 자극할 수 있는 토털 디자인을 접목하기 위해 각 분야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 출신 박정식씨 '오늘의 동시문학상'



문에 당선돼 문단에 나온 박씨는 '산들 사이에 두고' 등 동시집 4권을 냈으며 광주문학상, 한국 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시 전문지 '오늘의 동시문학'이 주관하는 '제 8회 오늘의 동시문학상' 수상자로 담양 출신 박정식씨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동시집 '형형색색'(세계문예에 펴냄)에 실린 '대서특필' 등 9편으로 "수상작은 시로 만들기 어려운 고사성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시조로 잘 형상화했으며 소재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1년 아동문예 작품상(동시부

3.1절에 부르는 33인의 동요

광주동요제...내달 1일 드앵아트홀

삼일절 기념 광주동요제가 오는 3월 1일 오후 4시 드앵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동요페다고지연구회가 창립 기념 음악회를 겸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33명의 동요 작곡가들이 만든 창작 동요 33곡이 공연된다.

류도경·유혜린·서수아·김건화·조성은 어린이 등이 '삼일절', '우리나라 무궁화', '민족대표 33인', '유관순 언니', '유관순과 잔다르크' 등 민족정신이 깃든 창작 동요를 들려준다.

성악 전공자로 구성된 동요페다고지연구회는 동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어린이들의 발성, 음악적 표현, 성악적 재능 계발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의 062-266-25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고향사람들과 함께

'워낭소리' 관람 하세요

'고향사람들과 '워낭소리' 관람해요.' (사)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위원장 유인화)와 광주·전남향우회(회장 허경만), 영암향우회(회장 이종대)가 광주·전남 향우들과 함께 영화 '워낭소리' 이철렬 감독 초청,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 28일 오후 4시30분 서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 극장.

이날 상영회에는 향우회 회원뿐 아니라 이철렬(현정회 회장), 이철승(세종문화회관 사장) 씨 등 정계·문화계 인사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영암 출신 이철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워낭소리'는 팔순 농부와 마흔살 된 소의 30년 우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로 1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몰이를 일으키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구.린원역국사거리 ☞에이1544-0600

엔터 시네마 홍성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빌딩 10개관) 해남점 (무역회관빌딩)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하미 시네마 진다후문 하미포렉스 ☎ 267-7777

제일 시네마 홍성로 37가 ARS 전화예매 227-1960

